

팩션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 요소 분석 연구

Analysis Study on Successful Hit Elements of Faction Film

<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

김경식, 정지훈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kyung-Sik Kim(boaz1212@hanmail.net), Ji-Hoon Jung(j95623035@hanmail.net)

요약

팩션 영화들의 연이은 대 흥행으로 현재의 영화계는 이른바 팩션 열풍의 시대라 불리우고 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의 한 구절을 모티브로 사라진 15일간 광해를 대신한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팩션으로 관객들의 몰입과 상상을 자극한다. 또한 광해와 그를 대신하는 또 다른 왕, 하선을 통해 역사 속 광해군을 양면적 모습으로 재조명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개봉하여 대중이 바라는 지도자의 상을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영상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팩션에 대해 고찰해 보고, 누적관객 12,323,555명으로 역대 6위의 흥행성적을 가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요소를 팩션영화로서의 <광해, 왕이 된 남자>, 광해의 양면성, 영화 개봉시기의 적절성, 이 세 가지로 분석, 연구한다. 결론적으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철저하게 대중들의 요구와 기호에 부합된 영화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연결 관계에서 영화의 방향성과 흥행결과의 전략적 요소를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영화계의 발전에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중심어 : | 팩션 | 팩션영화 | 광해 | 양면성 | 개봉시기 | 흥행요소 |

Abstract

The current movie world is called the era of faction hot-wind by the continuous hits of faction films. The interpretation of the missing 15 day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Gwang-hae's reign based on one sentence in the record makes 'faction' that there was another king, drives audiences to absorption and imagination in the faction film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 Furthermore, this film redefined historical king Gwang-hae as an ambivalent image through Gwang-hae and Ha-sun who filled the role as the king in it. Also, this film was appraised by reviews of reinterpretation of the image of leader who people want and hit success when the film released before the seas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thesis considers 'Faction' which is marked as a new image content and analyzes the film <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 which is listed as Korea's all-time sixth highest grossing film with 12,323,555 tickets sold nationwide by three sections; <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 as faction film, two images of Gwang-hae, and the appropriateness of film release time. In conclusion, the film <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 succeeded since it communicated with people to satisfy their wishes and taste.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and analyze the basic connection between the trend of movies and Strategic elements of the box-office results, and a significant stride for progression of the movies.

■ keyword : | Faction | Faction Movie | Gwang-hae | Two Sides | The Appropriateness of Film Release Time | Successful Hit Elements |

I.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한국 영화계에 1천만 관객을 넘어서며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영화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팩션이 있다.

<명량>(2014, 김한민 감독), <태극기 휘날리며>(2004, 강계규 감독), <변호인>(2013, 양우석 감독), <해운대>(2009, 윤제균 감독), <실미도>(2003, 강우석 감독), <괴물>(2006, 봉준호 감독), <왕의 남자>(2005, 이준익 감독),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 감독), <최종 병기 활>(2011, 김한민 감독) 등 대부분이 역사와 실화를 소재로 영화화 되었다.

이처럼 팩션영화들의 연이은 대흥행으로, 이른바 팩션열풍의 시대라 불리우며 한국영화계에는 팩션이 새로운 흥행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팩션이 새로운 콘텐츠로 떠오르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출판된 댄 브라운(Dan Brown) <다빈치코드>(The Da Vinci Code)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라 볼 수 있다.

<다빈치코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막달레나, 시온 수도회 등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익숙한 사실들이 소재로 사용되어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것과 성배 전설의 다소 충격적인 허구적 상상력이 결합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팩션에 대해 김성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사물의 고정된 경계를 해체하며, 또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는 포스트모던의 확산이다. 즉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왔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재조명하고, 지배문화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된 또 하나의 문화와 진리, 그리고 역사를 찾아내 드러내보자는 공동의 합의 때문이라는 것[1].”이라 말한다. <다빈치코드> 또한 대중이 믿어왔던 절대적 기독교적인 사실들이 이교도적인 해석으로 파헤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 속 사실에 대한 부분이 혼돈되고 독자들에게는 흥미롭고 실감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 이야기를 탄생시킨 <다빈치코드>는 팩션이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대중들은 충실한 사실을 원하지만, 기존의 사실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풀어주는 작업을 원한다. <다빈치코드>의 사례처럼 팩션은 대중의 이러한 요구점과 밀접히 관련된다. 팩션에서 주관적 기대치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대중들의 상상계이고, 대중적 선호는 대중들의 상상계에 부합하는 이야기, 이미지에 맞을 때 성립한다[2]. 따라서 대중적 선호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실(fact)와 허구적 상상력(fiction)의 결합이 팩션(faction)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켰고, 역사적 사실과 대중들의 상상계에 부합하는 이야기의 결합은 대중으로 하여금 색다른 쾌감을 형성하게 하여 큰 흥행코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개봉하여 누적관객 12,323,556명을 기록하며 한국영화 역대 6위를 차지하고, 그해 대중상 시상식에서 역대 최다인 15개부분에서 수상을 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광해군 일기’의 기록되지 않은 15일을 모티브로 제작된 팩션 영화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 중 “숨겨야 될 일들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 이르다”라는 한 줄의 글귀에서 시작 하여, 광해군 재위 시절 사라진 15일 간의 기록을 과감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영화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영상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팩션에 대해 고찰해 보고,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요소를 세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팩션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1. 팩션(Faction)

팩션(Faction)은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신조어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예술 장르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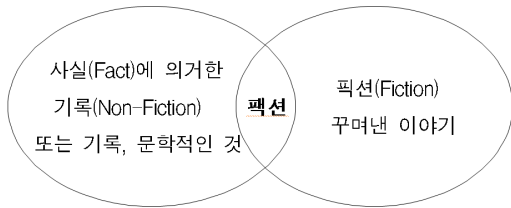


그림 1. 팩션의 개념[3]

팩션이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다빈치코드>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로 보나, 팩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60년대 미국 언론계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개발한 기사작성법을 작가들이 빌려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팩션은 1960년대 미국작가 트루먼 카포티(Truman capote)가 쓴 소설 <냉혈한 in Cold Blood>(1965)을 평가할 때 나온 개념이다. 이 소설은 1959년 11월 15일에 미국 캔사스주에서 실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캔사스에 취재를 간 카포티는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범죄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점들을 밝혀내기 시작한다. 그는 밝혀낸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대신에 범인들과 나눈 대화와 심리상태를 상상력을 가미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소설작품인 것처럼 읽히면서 팩션이 되었고, 카포티는 3년 뒤에 <밤의 군대들 The Armies of the night>(1968)이라는 작품을 다시 쓰면서 팩션 장르의 시조가 된다[4].

한국에서는 2003년 정도부터 저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국립국어원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팩션’의 다듬은 말을 공모하였는데,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각색실화’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팩션’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팩션에 범위에 대해 박진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다. ‘넓은 의미’의 팩션은 “실제와 허구를 과감하게 뒤섞어 결과적으로 리얼리티를 혼란에 빠뜨리는 다양한 종류의 서사물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의 팩션은 “사실이나 리얼리티의 개념 자체를 자의식적으로 문제 삼고 진실의 권위적 위상을 의도적으로 전복하는 서사물[5]”로 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팩션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나 실화를 왜곡하거나 대중들로 하여금 허구적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게끔 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인식은 팩션의 이러한 점에 대해 “팩션이나 영화를 비롯해서 그 어떤 예술작품이든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관점을 선택해야하며, 거기에 어느 정도 기억의 왜곡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객들의 보편적 정서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편파적인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져 역사적 사실의 근간마저도 뒤흔들 수 있는 왜곡을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6].”고 우려한다. 그러나 김기봉은 다른 관점에서 “팩션이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역사의 확대”라 주장한다. 오늘날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는 집단적 기억의 주입이 아니라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기억의 재구성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7].

팩션의 허구적 상상력으로 인한 역사 왜곡에 대해 여러 관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호는 이를 정리하며 앞으로 팩션장르 발전과제에 있어서 3가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관객들의 관람인식 변환구조이다. 이를 위해 팩션영화 관객이 인식하는 역사의 이해와 수용 자세에 대하여 서베이를 통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역사와의 소통구조 필요성이다. 역사를 새로이 접할 기회를 얻는 과정을 통해 관점에 대한 세대 간 소통의 장도 마련하게 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따라서 팩션영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정의 교육과 사전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영화작가의 예술정신이다. 작가들의 상상력은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시대가 요구하고 관객들의 열망에 의해 팩션영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표현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실과 허구의 줄타기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작가의 전문지식은 물론 예술정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8].

사실과 허구의 결합으로 팩션은 역사의 왜곡이냐, 다른 관점에서의 확대냐 하는 논의 가운데 있지만, 침체되었던 한국 영화계에 흥행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고갈되었던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앞

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팩션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숨겨야 할 일들은 기록에 남기지 말라 이르다 - 光海 100卷 8年 2月 28日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팩션영화다. 조선왕조실록의 광해군 일기 한 줄의 글귀에서 시작하여, 동화 '왕자와 거지'를 모티브로 하여 독살 위기에 놓인 조선의 왕(광해)을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하게 된 천민(하선)이 왕의 대역을 맡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팩션영화다.

다음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줄거리다.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봉당정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한다. 이에 '허균'은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을 발견한다.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하선'.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은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하룻밤 가슴 조이며 왕의 대역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한다. 저잣거리의 한낱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 '허균'의 지시 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 노릇을 시작한다. 하지만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와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달라진 왕의 모습에 궁정이 조금씩 술렁이고,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하선'의 모습에 '허균'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호시탐탐 음모를 꾸미며 기회를 엿보던 이조판서 '박충서'는 달라진 왕의 모습에 가짜임을 확신하고 진짜 왕이 숨어 있던 곳으로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

어 반역을 피하며 군사를 모아 왕에게 칼을 겨누지만, 그러나 이미 기력을 회복하여 돌아온 진짜 왕 '광해'였다. 이제 '하선'은 천민주체에 옥좌에 앉았었다는 이유와 그동안 진짜 왕처럼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명 받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호위무사 '도부장'의 목숨을 건 호위로 무사히 배를 타고 떠나게 된다.

하늘이 내린 임금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 아무도 모르게 왕의 대역을 맡았던 천민이 있었다는 신선한 발상으로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실제 역사와 상상력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통해 역사 뒤에 감춰진 다양한 인물들의 사연을 담아낸 팩션 영화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왕의 대역이 있었다는 허구적 상상력이 결합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허구(fiction)의 비율이 더 높다. 팩션영화에 있어 사실과 허구에 따른 기준의 모호함을 어느 기준에 두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주창운은 4가지 의견을 제시[9]하는데, 다음의 표로 정리된다.

표 1. 역사서술방식

첫째	기록적 역사 서술 방식	역사드라마 작가가 역사기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공유하여 역사성과 허구성 사이의 갈등이 크지 않다.
둘째	역사 개연적 서술방식	역사재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며 부족한 역사재료 즉,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dark area)은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된다. 역사적 개연성이 허구성보다 높다.
셋째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	정사(正史)가 간략히 기술되어 있어서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역사적 개연성보다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한다.
넷째	허구적 역사 서술 방식	역사적 배경만 사용했을 뿐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허구이다.

위의 표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둘째, 역사 개연적 서술방식과 셋째,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에 속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와 '광해'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은 역사 개연적 서술방식에 속하나,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의 한 구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조선의 왕 '광해'와 왕의 대역 '하선'의 이야기가 주로 전개가 되므로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상적 역사 서술방

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팩션 영화로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최근 들어 재조명 되고 있는 광해군의 민생적인 정책들을 허구 속 인물 ‘하선’의 모습을 통해 재해석 하고 있다.

팩션 영화에서 사실과 허구의 성공적인 결합은 대중의 몰입에 비례하는데, 대중의 관심과 요구에 의해 팩션장르가 성장한 것처럼 팩션의 성공 조건은 대중의 몰입과 연결된다.

대중의 몰입, 팩션에 열광하는 현상에 대해 김기덕은 언캐니 밸리의 관점을 예로 들어 대중적 몰입에 대해 설명한다.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불쾌한 골짜기란 뜻의 언캐니 밸리는 인간이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관련된 로봇틱스 이론¹⁾ [10]이다. 언캐니 밸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적 완성도만 갖추면 반감을 일으킨다. 팩션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대중의 역사적 인식체계를 무시하거나 기술적 완성도만 갖춘 경우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 비호감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럴 경우 막대한 비용과 집중도 있는 작업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언캐니 밸리는 사실성에 충실한 상태에서 관객의 주관적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하며, 불일치 상위효과는 사실성과 주관적 기대감을 일치시켜야 대중적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몰입이론에 따르면 대중들에게 익숙한 사실체계가 형상화 될 때 자기 통제감 상승효과로 대중적 몰입감을 높인다. 결국 팩션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점이 대중적 몰입과 직결된다[12].

고교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평가가 필요한 역사 인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광해군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폭군 광해와 성군 광해의 모습으로 재논의 되고 있는 광해군의 일기에 씌여 있는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라는 비밀스런 문장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왕의

대역 ‘하선’이라는 인물로 드러낸다. 역사 속 15일 동안 사라진 일기와 비밀스러운 한 문장은 대중으로 하여금 숨겨져 있는 역사를 파헤치고 상상하게 하며 몰입되게 함으로서 팩션영화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팩션을 향한 대중의 열광에 대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정보를 찾는 욕구에 부응하는 작품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 이후, 대동법과 중립외교등 광해군이 펼친 정책과 ‘광해군 일기’의 15일간의 기록에 대해 많은 검색과 조사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바야흐로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이 점점 책을 통한 역사 ‘지식’이 아닌, 사극을 통한 역사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13]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팩션장르, 특히 역사팩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진은 “외국의 경우 스릴러나 액션 요소들이 강한 팩션이 인기를 끄는 반면 우리는 ‘진실을 이제야 밝힌다’ 식의 ‘실미도’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진실로부터 차단돼 왜곡된 근현대사를 거친 우리에게 ‘진실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그 특성상 이면을 파헤치는 팩션에 유독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4].

‘왕자와 거지’ 이야기, 조선왕조의 권력 싸움, 그 사이에서 위협받는 왕의 모습에 대중들은 이러한 익숙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 15일 동안 왕(광해)을 대신한 가짜 왕(하선)이 있었다는 허구적 상상력에 공감을 하고, 그럴듯한 팩션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팩션 영화로서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몰입하게 하여 흥행으로 이끌었던 핵심적 요소라 볼 수 있다.

III. 광해의 양면성

‘광해’는 조선 15대 왕으로 16년간의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된 왕이다. 하지만 최근 광해군이 행했던 실리외교의 대외정책과 대동법 등의 민생 안정책

1) 이것은 1970년 일본의 로봇티시스트 모리 마사히로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실은 에른스트 엔치의 1906년 논문 “On the Psychology of the Uncanny”에서 소개된 ‘uncanny’라는 개념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엔치의 개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1919년 논문 “The Uncanny (Das Unheimliche)”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며 더 이상 광해군은 비운의 폭군이 아닌 개혁 군주로 재조명되고 있다.

당대의 진리나 역사는 언제나 이긴자의 기록이어서,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자들을 비난하고 배제하며 소외시킨다. 그러나 미셸 푸코의 말대로, 소위 문명이 ‘광기’로 규정하고 정통역사에서 제외된 또 하나의 역사가 사실은 올바른 정의이고 진실일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한 것을 밝혀내는 작업을 위해 픽션은 길으로 들어난 공식적인 역사와 감추어진 비공식적 역사, 실제사건들과 가상 사건들, 그리고 실제 인물과 허구적인 등장인물들을 뒤섞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픽션은 방대한 역사적 지식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15].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광해군의 양면적인 모습을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듯 당대와 현대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조선의 왕 ‘광해’를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양면성으로 대표되는 왕 광해를 조명하는 데 있어 그의 대리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참신한 설정을 가미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한다.

폭군 ‘광해’? 민중을 위한 왕 ‘광해’? ‘광해’는 과연 어떤 인물로 조명해야 할까?



그림 2. 광해와 하선

양면성(兩面性)은 명사로 한 가지 사물에 속해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로 정의된다. 인간의 양면성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과 악으로 대립되는 인간의 양면성은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서양의 기독교 사상 속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회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장소라 주장하는 루소의 개념까지 인간 본연의 성질이 선하나, 악

하나에 대해 논의되어왔다. 극명하게 이분법적인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선과 악의 대립적인 모습을 예술에 투영시켰고 이는 다양한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원제: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1886)는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적 자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세계적인 걸작이다.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지킬박사는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악의 모순된 이중성을 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상에서 약품을 만들어 복용한 결과, 악성을 지닌 추악한 하이드로 변신한다. 그리고 점차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신하여 지킬박사로 되돌아가기가 힘들어지고 마침내, 하이드는 살인을 하고 경찰에게 쫓긴다.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 자살을 하여 이후 모든 것이 유서로 고백된다는 내용의 이 소설은 오늘날 이중인격, 선과 악,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동의어가 되어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출판된 이후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끊임없이 소설, 만화, 연극, 영화, TV드라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 되고 있는데,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주제가 그만큼 대중들에게 보편적이고 본능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지킬박사와 같이 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길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둡고 은밀한 반사회적인 모습의 하이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태규 대중문화 평론가는 “누구나 본능처럼 자아가 충돌하고 때론 다른 사람마냥 돌변하기에, 다중인격이나 인간 내면의 고뇌는 대중문화에 선 인기 소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중문화 속 인기 소재일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양면성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영화 속에서 ‘광해’라는 역사 속 인물을 폭군의 모습과 민중을 위한 서민적인 왕의 모습으로 대립시키는데, 한 대상에 겹쳐지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광해’의 양면성을 ‘광해’와 ‘하선’의 두 인물로 정 반대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1. 광해

역사 속 광해군은 폭군이었다. 17년간의 왕세자 시절엔 아버지 선조의 질투와 견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고, 즉위 후에는 끊임없는 역모와 독살에 대한 두려움, 왕권 강화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저 풍문일 뿐이었던 고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수년간 조정을 피로 몰들게 했다. 자신을 압박하는 일련의 모든 사사로운 일들에 점점 피폐해져가고, 극도로 예민해지던 광해군의 모습이 ‘광해’를 통해 영화에서 보여진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첫 장면은 ‘광해’의 아침 단장으로 시작된다. 분을 문혀 ‘광해’ 얼굴에 두드려 바르는 손, 수염을 닦고 다듬고 종지에 기름을 내어 참빗에 문혀 머리를 쓸어내린다. 조용하고 신중히 ‘광해’의 아침단장을 돕는 궁녀들의 모습이다. 머리를 틀어 상투를 매는 사이사이 향합(香奩)을 ‘광해’의 코밑에 가져간다.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광해’. 얼른 다른 향합을 내어온다. 다시 내음을 맡는 ‘광해’, 그제서야 얼굴이 핀다. 향에 민감한 모습을 드러내는 첫 장면에서부터 ‘광해’의 성격이 묘사된다.

이어 다음 날 아침, 숨가쁘게 뛰어가는 버선발들, 엮어진 수라상과 흩어진 음식들과 “죽여주시옵소서” 소리가 터져나오며 침전의 장면이 펼쳐진다. 이 장면에서 독살의 위협과 이에 대한 ‘광해’의 내면이 묘사된다.

광해 당장 침소부터 옮겨야겠소
 허균 전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광해 (버럭) 궁 안은 역도들로 날뛰는데... 어찌 편전만 지키라는 것이요? 턱밑까지 와있는 저들의 칼날이 안 보이오

랭한 눈매의 ‘광해’, 이 히스테리컬한 모습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처해있던 그간의 두려움을 표현한다. 역모와 독살의 압박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해’의 이러한 대사는 극도로 예민해진 반응으로 묘사되어, ‘광해’의 아슬아슬한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 3. 광해

그리고 겨우 잠든 밤, 검은 복면의 자객들이 서서히 다가와 그 중 한 자객의 칼이 자신을 난자하는 악몽을 꾸는 ‘광해’의 밤 장면 또한 ‘광해’ 성격묘사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중전의 오라비인 유정호를 역모로 몰아 그의 처형을 음모하는 대신들을 돌아서는 ‘광해’에게 유생들이 엎드리며 윤희를 외친다. 그들을 피해 돌아가려 하면 또 다른 유생들이 엎드려 ‘광해’의 길을 막는다. 유생들에게 둘러싸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광해’의 모습은 왕권과 정치세력사이에서 고민하는 ‘광해’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 장면은 다음에 ‘하선’의 장면에서도 묘사가 되는데, 비교되는 두 인물의 태도로 양명성이 극대화된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 하지 않으면 이내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 ‘광해’는 유정호에 대한 대화에서 아주 정치적이고 이성적인, 폭군으로서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광해 나도 알고 있소
 허균 ...
 광해 유정호야 말로 충신이지... 강직한 내 처남..
 허균 하운데...?
 광해 유정호 정도는 내 주어야지... 저들도 날 믿을 것 아니요
 허균 ...
 광해 잊읍시다.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순 없는 일 아니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광해’는 비운의 삶을 살며 한번도 안정적으로 왕권을 갖지 못하고 암살의 위

협에서 버텨야 했던 왕 ‘광해’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광해’가 폭군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점점 피폐해지고 더욱 예민해져 늘 칼날을 세워야 했던 ‘광해’의 모습은 ‘하선’이라는 또 다른 왕의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2. 하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광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그를 대신 할 또 다른 왕의 역할을 찾는다. 풍악소리가 요란하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기생집 흥루몽에서 왕을 풍자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한 광대가 있다. 생김새가 왕과 똑 닮은 ‘하선’이다.

‘하선’은 매사에 유쾌하고 소탈하며, 잔정이 많은 인물이다. 그의 성격은 그와 다른 인물들간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왕자와 거지’의 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하선’이라는 인물을 통해 ‘광해’의 또 다른 양면성을 보여준다.

2.1 사월과 하선

광대 짓으로 관아에 잡혀 간 ‘하선’은 풀려나는 대가로 현감에게 새로 온 애기 기생과의 잠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이 같은 상황에 분통해하고 있었다. ‘하선’은 왕의 역할을 하면서 한 기미나인이 울린 팔죽을 먹고 이름과 나이를 묻는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어린 기미나인에게 이름을 묻는 왕에게 다들 놀란다.

하선 (사월에게) 넌 이름이 무어나
 사월 (화들짝) 예, 전하~ 사, 사월이옵니다.
 하선 나이는?
 사월 열다섯이옵니다.
 하선 (끄덕끄덕) 열다섯이라!

‘사월’이란 이름의 기미나인이 열 다섯이란 말에 애기 기생을 떠올리며 ‘하선’은 어린 ‘사월’에게 관심을 갖는다. 매일 밤, 야식을 갖고 오는 ‘사월’에게 간식을 나눠 주며 담소를 나누는 ‘하선’은 궁으로 오게 된 사연을 들으며 대동법의 폐해와 피해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

는다. 이 장면 이후, ‘하선’은 대동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역사 속 사실과 같이 땅을 가진 만큼 조세를 부과하도록 대동법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을 베푸는 ‘하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월’에게 한상궁이 독이 든 계피사탕을 내밀며 암살을 도우라 한다. 결국, ‘사월’은 사탕을 삼키고 피를 흘리며 ‘하선’ 대신 죽는 길을 택한다.



그림 4. 사월을 안고 뛰는 하선

버선발로 ‘사월’을 안고 의원에게 가 울부짖으며 “살려내어라. 살려내어야 한다!” 외치는 ‘하선’의 모습에서 신분과 체통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한 약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하선’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사월’의 죽음 이후, ‘하선’은 뒷 세력을 추궁하면서 왕 노릇을 벗어나 진정한 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2.2 중전과 하선

도부장을 따라 궁의 뒷문을 나서면서, 새벽기도 하는 ‘중전’을 처음 본 ‘하선’은 선녀 같은 모습에 반한다. 그러나 중전과는 절대 마주쳐서는 안된다는 허균의 지시에 슬픔이 가득 찬 무표정한 얼굴의 ‘중전’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후, 오라비인 유정호를 풀어준다는 약조를 지킨 ‘하선’은 ‘중전’을 찾아간다.

하선 내 약조대로 유정호는 방면하였소이다.
 중전 들었사옵니다.
 하선 허면 내 청도 들어주시오
 중전 …(본다) …말씀하시옵소서.
 하선 (잠시) …한번 웃어보시오.

중전 ...예?

하선 날 보고 함 웃어달란 말이오

어떤 정치적인 부탁이 아닌 ‘중전’의 웃음을 부탁하는 ‘하선’에게 ‘중전’은 의아해하지만, 사월에게 팔죽을 보내 “중전의 얼굴이 창백하오, 이 팔죽을 먹고 어서 힘을 내시오.”라며 노력하는 ‘하선’의 행동에 점차 마음이 열리고 열린 미소를 짓게 된다.

정전 앞, 유생들이 몰려 중전을 폐위하라는 호소를 하며 ‘하선’의 앞을 막는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저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중전’을 발견한다. 광해와 달리 ‘하선’은 엎드린 유생들의 등을 정겹다리 밟듯 밟으며 ‘중전’에게 뛰어간다. 그리고 ‘중전’의 손목을 낚아채 뛰기 시작한다.



그림 5. 중전의 손을 잡고 뛰는 하선

합궁 날, ‘중전’은 왕이 아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선’을 알아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를 하명하라는 명한 것도 ‘하선’이 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묻는다. 자신이 편하게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소박한 ‘하선’의 대답에 ‘중전’은 가슴이 아린다.

한 여자와 남자가 아닌, 왕과 중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다가오는 음모의 세력에 마음을 굳게 닫은 ‘중전’에게 조금씩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게 해준 ‘하선’의 노력은 있는 그대로 한 여자로서의 ‘중전’을 볼 수 있게 한다.

2.3 도부장과 하선

‘도부장’은 왕의 호위무사로서 아주 강직하고 정도를 지키며 궁의 법칙을 따르는 고지식한 인물이다. 따라서

왕의 노릇을 하는 ‘하선’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고민하고 당황해 하는 ‘도부장’의 모습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를 보여준다.

‘하선’은 혼자 있기 위해 신하들을 내보내는데, ‘도부장’은 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하선’의 옆을 지킨다. 이에 ‘하선’은 신발을 던지고, ‘도부장’은 신발을 줍기 위해 얼른 뛰어간다. 신발을 던지는 이 한 장면에 궁의 법도가 얼마나 세세하고 정확한지, 그리고 ‘하선’이 이를 얼마나 유쾌하게 헤집어놓는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중전을 만나러 가는 달밤, 흥얼거리며 무의식중에 광대 걸음걸이를 하는 ‘하선’의 뒷모습에 ‘도부장’은 그가 왕이 아님을 확신하고 그에게 칼을 겨둔다. 그러나 중전의 증언으로 ‘하선’은 위기를 모면하고, ‘도부장’은 왕에게 칼을 겨는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 사하고자 한다.

하선 제 목숨을 걸고 날 지켜야 할 호위관이 저 맘대로 죽겠다고 칼을 몰다니..

그것이야 말로 대역죄가 아니고 무어냐

도부장

하선 내 목에 칼을 들이댄거야 열 번이라도 상관 없다. 허나 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너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냐

한날 파리의 목숨처럼 사람의 명줄이 왔다갔다하는 궁에서 왕이 자신의 목숨의 중요함을 말해주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하는 것은 ‘도부장’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신하로서의 충신을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후, ‘도부장’은 ‘하선’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준 사람 또한 ‘하선’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선’의 뒤를 지켜준다.

‘하선’은 ‘사월’, ‘중전’, ‘도부장’ 등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의 모습이 아닌 인간으로서 다가가려 한다. 광대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왕을 흉내내고 있지만, 정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웃음 짓게 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궁의 모든 이들이 ‘하선’이 왕이 아님을 깨달으면서도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길 바랐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양면성은 언제나 대중들에

게 인기있는 소재였지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역사 속 인물 '광해'를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대중들에게 광해의 양면성(광해와 하선)을 묘사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광해'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하선'의 모습을 통해 대중이 바라는 왕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대중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또 하나의 흥행요소가 되었다.

IV. 개봉 시기의 적절성

흔히 영화계에서 한 해 농사는 여름에 다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화 흥행을 기대하는 시기가 있는데, 여름과 겨울 성수기, 그리고 대명절인 설과 추석이 그 시기이다. 같은 해 개봉되었던 영화 <도둑들>(2012, 최동훈 감독)은 7월 15일에 개봉하여 여름이 성수기를 장악하며 12,983,341명의 관객수를 기록하고 2012년 흥행순위 1위 영화로 기록되었다. 이어 개봉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도둑들>에 이어 12,323,555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2위 흥행영화가 되었다.

이처럼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적절한 개봉시기 일 것이다. 영화의 개봉 전과 후 어떤 영화들이 상영이 되며, 대중들의 현 관심사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개봉시기가 늦춰지기도 빨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개봉시기와 영화의 흥행성은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2011년 9월 본격적인 제작단계가 시작 되고, 영화의 개봉시기를 2012년 9월로 계획한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마케팅 전략이 진행된 것이다.

2012년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소란스러웠다.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개봉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왕이 된 바뀐 사건을 통해 낮은 신분으로 임금의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들에서 우리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까지 '대선 전 꼭 봐야하는 영화'로 시대적 흐름을 타며 흥행에 성공한다.

영화가 생성해내는 쾌감과 쾌락은 상당부분 물신화 작용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이미지의 사실성에 있다. 영화가 의도적으로 사회의 실제적 조건에 근접하도록 고안될 때, 관객은 영화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모델로서의 사회현실에 대한 묘사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극적으로 증폭된다[16]. 영화를 본 관객들은 하선의 감정적이지만 백성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 현 사회에서 찾기 힘든 이상적인 지도자로 상승시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는 왕이 되겠소>란 변으로 기호 0번으로 출마하는 '광해'의 포스터가 화제가 되었던 사실을 보면 대중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하선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대체 뭐길래! 이만
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오?

영의정 ...

하선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아미라 부르는 왕
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처럼 민중을 생각하는 왕(하선)과 같이 민중에 대한 소재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현실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SNS의 활성화가 확대되면서 대중들은 더 이상 역사의 주인이 상류층 혹은 소수의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 대중이라는 민주주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진 교수(드라마 평론가, 충남대국문과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한국사회의 정치 불신과 경제난에서 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권위를 해체하는 인물'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기득세력, 정치권에 대한 대중, 즉 한국인의 불신을 표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해>속 가짜 왕 하선과 같은 인물들은 당대 대중이 발현한 욕망의 대리리아자 그것의 집약체로서 기능하며 이는 표층적으로 드러난 이데올로기 저항의 담론 외에도 당대 대중의식을 가늠하는 장치로도 사용된다[17].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내면은 현 시대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눈만 마주치면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던 서인과 북인 사대부들이 대동법을 막기 위해 야합하는 장면에서는 망치를 들고 싸우다가도 세비를 올릴 때는 한마음으로 뭉쳤던 국회의원들이 떠오르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데도 명예 사대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료들의 행동에서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대국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힘없는 외교력이 스쳐간다. 또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왕권이 우선인 왕의 모습에서는 소외되는 국민의 삶이 겹쳐진다[18].

2012년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관람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대선이라는 큰 사회적 흐름을 앞세워 대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군주의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이슈를 만들고 천만관객의 흥행성적을 거두며 개봉시기의 마케팅 전략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영화에 있어 흥행은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의 척도를 드러내며 동시에, 영화기획과 마케팅전략의 성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2012년 개봉하여, 천만관객을 기록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의 한구절에서 착안하여 광해와 그를 대신하는 또 다른 왕의 이야기로 팩션영화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침체되었던 한국영화계에 천만관객의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팩션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우려와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해석을 제시한다는 두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재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대중들의 몰입감을 높여 영화계에 새로운 흥행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팩션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광해의 두 가지 측면을 ‘광해’와 광대 ‘하선’, 이 두 인물의 대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낸다. 인간의 본능으로 오랜 세월 논의되고 있으며 대중에게 가장 공감될 수 있는 양면성은 그 소재의 가치에 따라 영화에서 자주 다뤄진다. 이는 한가

지의 측면이 아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영화의 주제에 대한 의도를 담기도 한다. 인간의 양면성은 현대영화에서는 공공연하게 인기 있는 소재이며, 양면성은 한 장르가 아닌 여러 장르와의 혼재, 혼합 속에서 새롭게 창작되고 있는 현대영화의 트렌드를 연상시킨다.

팩션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속 주 요소가 되는 광해의 양면성을 여러 흥행요소 중 한 요소로 분리하기에는 범위가 미미한 면이 있지만, ‘광해’와 ‘하선’, 이 두 인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광해의 양면성은 현대영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영화 속에 내포된 또 하나의 흥행요소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화의 흥행은 여러 흥행요소들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사와 현 사회적 이슈, 정치적 문제 등 개봉시기의 시대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하선’이란 인물을 통해 진정한 군주란 어떤 인물인지를 관객에게 던지며, 2012년 말 대선을 앞둔 시기에 대중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상은 어떤지를 영화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되었다. 제작단계에서부터 기획된 이 개봉시기와 영화와의 조합은 대중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역대 관객동원수 6위를 기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팩션(Faction), 인물의 양면성, 개봉시기의 적절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철저하게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한 영화로 분석할 수 있다.

영화의 흥행에는 스토리, 연출, 배우, 스태프,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다. 그만큼 시나리오 작업부터 기획, 제작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 요소를 분석해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대중들의 요구이다. 대중이 바라는 스토리,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 대중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이슈들은 매년 영화에 담기고 이내 대중들의 관심으로 재표현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연결 관계에서 영화의 방향성과 흥행결과의 전략적 요소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영화계의 발전에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엘리자베스 코스트바, 김성곤 “팩션은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는가?”, *히스토리언(1)*, 김영사, pp.281-282, 2005.
- [2] 김기덕, “팩션영화의 유형과 ‘대중적 몰입’의 문제”, *역사문화연구*, 제34집, p.458, 2009.
- [3] 최예정, 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리 문화콘텐츠 총서*, 제6권, p.14.
- [4] 김성곤, “‘팩션’, <사유의 열쇠>, 산처럼, 2006: 김성곤, ‘현실과 환상의 경계 해체’, 기획회의, 2004(9).
- [5] 박진, “역사추리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한국적인 특수성”, *현대소설연구*, 제32권, p.340, 2006.
- [6] 김인식,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기억-컨들러리스 트의 사례로 본 역사영화 수용의 문제”, *서양사연구*, 제29호, pp.176-179, 2002.
- [7] 김기봉, “팩션으로의 역사서술”, *부산경남 사학회 기획 발표회*, 동아대, 2006.
- [8] 한달호, “한국 영화 제작의 다양성을 위한 팩션 콘텐츠 활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 pp.200-201, 2009.
- [9]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호, pp.174-176, 2004.
- [10] <http://ko.wikipedia.org/wiki>
- [11] 김기덕, “팩션영화의 유형과 ‘대중적 몰입’의 문제”, *역사문화연구*, 제34집, p.461, 2009.
- [12] 김기봉, 위의 글, p.18.
- [13] 정유진, “팩트야? 픽션이야?”, *경향신문*, 2006.
- [14] 김성곤, 위의 글, pp.283-284.
- [15] 서인숙, “한국 영화의 미학 탐구 -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11호, p.51, 2006.
- [16] 김수영, *한국 드라마 제작의 다양성을 위한 팩션 사극(Faction-史劇)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p.32, 2013.
- [17] 주정림, *광해, 재평가 받아야 할 역사인물 1위*, 걷는나무 출판사, 2012.

저 자 소 개

김 경 식(kyung-Sik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철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역 축제 연출 및 기획

정 지 훈(Ji-Hoon Jung)

준회원



- 2013년 2월 : 청주대학교 영화학과(영화학사)
- 2013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영화 기획, 프로듀서, 영상콘텐츠